경기일보

의정부소방서, 상가 주변 화재 안전 캠페인

입력 2024-03-31 오후 7:09

의정부소방서 관계자와 의용소방대원이 상가 주변에서 안전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다. 의정부소방서 제공

의정부소방서(유해공 서장)는 의정부 동오마을 인근 상가 주변을 대상으로 주변 청소하고 화재도 예방하는‘안전환경의 날 캠페인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.

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의정부시 전체 1천84건 중 쓰레기 화재는 총 127건이다. 이는 전체 화재의 11.7%를 차지한다.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6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담배꽁초(83%), 쓰레기 소각(7%)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.

이에 생활주변 정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민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·상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등 쓰레기 화재 취약장소를 찾아‘안전환경의 날 캠페인’을 매월 1회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.

이날 의정부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서 관계자들 20여명이 모여 주변 환경 정리 및 주변 상가 부주의 화재예방 당부 등 안전수칙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.

유해공 서장은“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쓰레기 화재가 적지 않다”며 “매달 실시하는 안전환경의 날 캠페인에 의정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”고 전했다

김창학 기자

#안전환경의 날 #화재 #의정부소방서 #동오마을 #안전환경의 날 캠페인

© 경기일보(www.kyeonggi.com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